

외국인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

송창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혜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I. 서론

□ 국내 대학에서 외국인 박사학위 취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고급인력 활용의 관점에서 외국인의 국내 박사학위 취득 후 진로에 대한 관심이 필요

○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의하면, 2012년 전체 박사학위 취득자 12,243명 중 외국인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는 867명(7.1%), 2013년에는 전체 12,625명 중 1,007명(8.0%)으로 증가하고 있음.

- 외국인이 국내 대학으로의 진학을 결심하게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학위 취득 후의 진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전문대학원의 외국인 박사학위 취득자는 2012년부터 조사됨.

※ 일반대학원 외국인 박사학위 취득자는 2010년 685명, 2011년 750명, 2012년 831명, 2013년 950명으로 매해 전년도 대비 각 9.5%, 10.8%, 14.3% 증가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조사(2014)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외국인 박사학위 취득자의 국내 진학 동기, 연구 지원 현황, 취업 현황, 향후 진로 계획 등을 분석함.

○ 현재 외국인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연구 지원 및 고용, 학위 취득 후의 진로 등에 대한 정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조사(승인통계 제 92009호)가 유일함.

○ 분석 대상은 2013년 8월 및 2014년 2월 박사학위 취득자 중 조사에 응답한 외국인 박사학

위 취득자 753명임.

II. 외국인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기본 특성

-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기본 특성을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 61.6%, 여성 38.4%로 절반 이상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수도권 44.1%, 비수도권 55.9%로 비수도권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30~39세가 7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40~49세 12.5%, 30세 미만 5.2%, 50세 이상 3.1%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35.0세로 나타남.
 -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 44.8%로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중 절반 가까이가 중국인인 것으로 보이며, 인도 10.1%, 베트남 9.7%, 파키스탄 4.8% 순으로 나타남.
 - 계열별로는 공학계열이 30.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연계열 27.0%, 사회계열 14.9%, 인문계열 12.9%, 의약계열 9.0%, 예술·체육계열 3.2%, 교육(사범)계열 2.1% 순임.

표 1. 신규 외국인 박사학위 취득자의 특징

(단위: 명, %, 세)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체		753	100.0	출신 국가	중국	333	44.8
성별	남성	464	61.6		인도	75	10.1
	여성	289	38.4		베트남	72	9.7
지역	수도권	332	44.1		파키스탄	36	4.8
	비수도권	421	55.9		기타	228	30.6
연령	30세 미만	39	5.2	전공 계열	인문	97	12.9
	30~39세	597	79.3		사회	112	14.9
	40~49세	94	12.5		공학	233	30.9
	50세 이상	23	3.1		자연	203	27.0
	평균	35.0			의약	68	9.0
			교육(사범)		16	2.1	
			예술·체육		24	3.2	

패널 브리프

- 국내 대학으로의 진학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연구시설 등 연구 환경이 좋아서가 37.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는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싶어서(19.4%), 교수진과 교육과정 등 교육의 질이 좋아서(18.2%), 장학금, RA 등 학비지원이 많아서(16.2%) 등으로 나타남.
- 교육 및 연구 환경과 지원이 좋아서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이 응답자 중 72.0%에 해당함.

표 2.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489	100.0
장학금, RA 등 학비지원이 많아서	79	16.2
연구시설 등 연구 환경이 좋아서	184	37.6
교수진과 교육과정 등 교육의 질이 좋아서	89	18.2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싶어서	95	19.4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고 싶어서	13	2.7
기타	29	5.9

□ 외국인 국내 박사의 학비 조달 방식은 장학금이 63.6%, 본인 부담 20.7%로 본인 부담 비율이 장학금의 3분의 1 수준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 67.8%, 비수도권 60.4%로 수도권이 7.4%p 높음.
- 연령별로는 40세 미만이 약 66%인 반면 40~49세는 54.0%, 50세 이상은 26.0%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본인 부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로는 베트남(84.3%), 파키스탄(80.3%)이 장학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공 계열별로는 공학(77.6%) 및 자연(73.4%)계열의 장학금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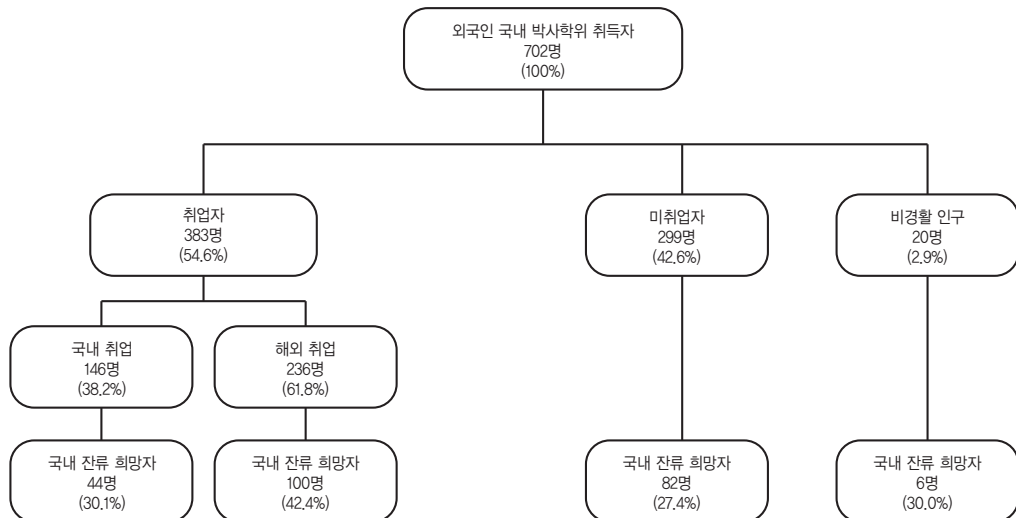
표 3. 학비 조달 방식

(단위: %)

구분		본인부담	장학금	구분	본인부담	장학금	
전체		20.7	63.6	출신 국가	중국	24.1	54.9
성별	남성	21.5	64.6		인도	22.1	63.3
	여성	19.4	62.0		베트남	7.1	84.3
지역	수도권	19.4	67.8		파키스탄	5.5	80.3
	비수도권	21.6	60.4		기타	20.8	68.7
연령	30세 미만	21.9	66.5	전공 계열	인문	31.1	44.2
	30~39세	16.7	66.4		사회	38.1	45.4
	40~49세	33.2	54.0		공학	10.4	77.6
	50세 이상	69.0	26.0		자연	13.3	73.4
					의약	25.8	56.4
				교육(사범)	23.1	51.9	
				예술·체육	34.3	46.8	

Ⅲ. 외국인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진로 실태

그림 1. 외국인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진로 실태



1. 외국인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취업 현황¹⁾

□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총 702명 중 취업자의 비율은 54.6%

- 외국인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성별, 지역별, 연령별, 출신 국가별, 전공계열별 취업자 비율을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 63.7%, 여성 36.3%로 남성 취업자 비율이 여성의 1.5배 이상 높음.
 - 연령별로는 30~39세가 74.2%로 가장 높은 취업자 비율을 보였으며 40~49세 16.7%, 30세 미만 5.0%, 50세 이상 4.2%로 나타남.
 -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이 46.2%로 중국 출신의 국내 박사들의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베트남 11.9%, 인도 6.6%, 파키스탄 3.7% 순으로 나타남.
 - 전공계열별로는 공학계열이 29.2%로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자연계열 24.3%, 사회계열 16.7%, 인문계열 15.1%, 의약계열 7.3%, 예술·체육계열 4.2%, 교육(사범)계열 3.1% 순으로 나타남.

표 4. 외국인 박사학위 취득자의 특성별 취업자 비율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체		383	100.0	출신 국가	중국	175	46.2
성별	남성	244	63.7		인도	25	6.6
	여성	139	36.3		베트남	45	11.9
지역	수도권	185	48.3		파키스탄	14	3.7
	비수도권	198	51.7		기타	120	31.7
연령	30세 미만	19	5.0	전공 계열	인문	58	15.1
	30~39세	284	74.2		사회	64	16.7
	40~49세	64	16.7		공학	112	29.2
	50세 이상	16	4.2		자연	93	24.3
					의약	28	7.3
			교육(사범)	12	3.1		
			예술·체육	16	4.2		

1) 취업 현황은 외국인 박사학위 취득자 753명 중 취업 현황 문항에 응답한 702명만을 분석 대상으로 함.

□ **외국인 국내 박사 취업자 중 84.8%가 대학을 포함한 연구 관련기관(공공 및 민간 연구소)에 취업함.**

-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국내 박사의 비율은 38.2%이며, 이들의 직장 유형을 살펴보면 대학 (75.3%)에 집중됨.
 - 그 외에는 민간기업 11.0%, 공공연구소 6.8%, 정부·지자체 2.1%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대학을 포함한 연구 관련기관에 83.5%가 집중됨.
- 해외에 취업한 외국인 국내 박사의 비율은 61.8%이며, 이들의 직장 종류를 살펴보면 대학 이 78.0%로 대학에 집중됨.
 - 그 외에는 공공연구소 7.6%, 정부·지자체 7.6%, 공기업 2.1%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대학을 포함한 연구 관련기관에 85.6%가 집중됨.

표 5. 취업자의 직장 유형

(단위: 명, %)

구분	전체		국내취업		해외취업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382	100	146	38.2	236	61.8
대학	294	77.0	110	75.3	184	78.0
정부·지자체	21	5.5	3	2.1	18	7.6
공공연구소	28	7.3	10	6.8	18	7.6
민간연구소	2	0.5	2	1.4	0	0.0
공기업	6	1.6	1	0.7	5	2.1
민간기업	17	4.5	16	11.0	1	0.4
창업·자영업	5	1.3	2	1.4	3	1.3
기타	9	2.4	2	1.4	7	3.0

주: 외국인 국내 박사 취업자 중 직장 유형에 응답하지 않은 1명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외국인 국내 박사 취업자 중 해외 취업자의 94.5%가 정규직인 반면, 국내 취업자는 36.4%만이 정규직임.**

- 외국인 국내 박사 취업자 전체의 일자리 유형을 살펴보면 정규직 72.6%, 비정규직 27.4%로 정규직 비율이 약 3배 가량 높음.

패널 브리프

- 외국인 국내 박사 취업자의 대부분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정규직 68.5%, 비정규직 31.5%로 정규직 비율이 1.5배 가량 높음.
- 국내 취업자의 경우 정규직 36.4%, 비정규직 63.6%로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나타남.
 - 외국인 국내 박사 중 70% 이상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정규직이 25.3%, 비정규직이 74.7%로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함.
 - 대학 외에도 연구 관련 기관인 공공연구소의 경우에도 정규직 30.0%, 비정규직 70.0%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해외 취업자의 경우 정규직 94.5%, 비정규직 5.5%로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국내 취업자의 일자리 유형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고급 인력이 국내 노동시장에 진입 시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6. 취업자의 일자리 유형

(단위: %)

구분	전체		국내취업		해외취업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72.6	27.4	36.4	63.6	94.5	5.5
대학	68.5	31.5	25.3	74.7	93.6	6.4
정부·지자체	95.0	5.0	66.7	33.3	100.0	0.0
공공연구소	70.4	29.6	30.0	70.0	94.1	5.9
민간연구소	100.0	0.0	100.0	0.0	0.0	0.0
공기업	100.0	0.0	100.0	0.0	100.0	0.0
민간기업	87.5	12.5	86.7	13.3	100.0	0.0
창업·자영업	100.0	0.0	0.0	0.0	100.0	0.0
기타	100.0	0.0	100.0	0.0	100.0	0.0

주: 외국인 국내 박사 취업자 중 직장 유형 또는 일자리 유형에 응답하지 않은 33명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2. 외국인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국내 잔류 희망

□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중 국내잔류 희망 비율은 전체 702명 중 49.9%임.

○ 국내잔류 희망 비율을 성별, 지역별, 연령별, 출신 국가별,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 53.7%, 여성 43.7%로 남성 취업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국내 잔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수도권 48.9%, 비수도권 50.6%로 수도권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국내잔류 희망 비율이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60.5%, 30~39세 52.0%, 40~49세 34.5%, 50세 이상 38.1%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국내잔류 희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7. 국내잔류 희망 비율(박사학위 취득자 전체)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체		702	49.9	출신 국가	중국	316	42.1
성별	남성	434	53.7		인도	71	81.7
	여성	268	43.7		베트남	62	54.8
지역	수도권	317	48.9		파키스탄	33	60.6
	비수도권	385	50.6		기타	212	48.1
연령	30세 미만	38	60.5	전공 계열	인문	88	31.8
	30~39세	556	52.0		사회	109	39.4
	40~49세	87	34.5		공학	222	54.1
	50세 이상	21	38.1		자연	181	61.9
					의약	64	56.3
			교육(사범)	16	12.5		
			예술·체육	22	40.9		

패널 브리프

- 출신 국가별로는 인도 81.7%, 파키스탄 60.6%, 베트남 54.8%, 중국 42.1%로 인도 출신의 박사는 대부분이 국내에 잔류하기를 희망한 반면, 중국 출신의 박사는 절반 미만이 국내에 잔류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남.
- 전공계열별로는 자연 61.9%, 의약 56.3%, 공학 54.1%, 예술·체육 40.9%, 사회 39.4%, 인문 31.8%, 교육(사범) 12.5%로 이공계열(의약계열 포함) 박사학위 취득자의 국내잔류 희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국내 박사 취업자 383명 중 37.6%가 국내에 잔류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의 국내잔류 희망 비율을 성별, 지역별, 연령별, 출신 국가별,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 34.8%, 여성 42.4%로 취업자 중 국내에 잔류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 박사가 여성에 비해 남성이 7.6%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수도권 36.2%, 비수도권 38.9%로 지역별 국내잔류 희망 비율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연령별로는 40~49세 48.4%, 50세 이상 37.5%, 30~39세 36.3%, 30세 미만 21.1%로 40대의 국내잔류 희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출신 국가별로는 베트남 40.0%, 중국 36.6%, 파키스탄 21.4%, 인도 12.0%로 베트남 출신 박사 취업자의 국내 잔류 희망 비율이 타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공계열별로는 사회계열 42.2%, 교육(사범)계열 41.7%, 인문계열 39.7%, 공학계열 39.3%, 자연계열 33.3%, 의약계열 32.1%, 예술·체육계열 31.3%로 국내에 취업한 사회계열 외국인 박사의 국내잔류 희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8. 국내잔류 희망 비율(취업자)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체		383	37.6	출신 국가	중국	175	36.6
성별	남성	244	34.8		인도	25	12.0
	여성	139	42.4		베트남	45	40.0
지역	수도권	185	36.2		파키스탄	14	21.4
	비수도권	198	38.9		기타	120	45.8
연령	30세 미만	19	21.1	전공 계열	인문	58	39.7
	30~39세	284	36.3		사회	64	42.2
	40~49세	64	48.4		공학	112	39.3
	50세 이상	16	37.5		자연	93	33.3
					의약	28	32.1
교육(사범)	12	41.7					
예술·체육	16	31.3					

□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박사 146명 중 30.1%만이 국내에 잔류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취업자의 국내잔류 희망 비율을 성별, 지역별, 연령별, 출신 국가별,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 25.3%, 여성 38.2%로 국내에 취업한 여성 외국인 박사의 국내 잔류 희망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 31.1%, 비수도권 29.2%로 국내 취업자 중 30% 내외만이 국내에 잔류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패널 브리프

-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20.0%, 30~39세 28.6%, 40~49세 42.1%, 50세 이상 40.0%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국내 취업자의 잔류 희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 38.5%, 베트남 25.0%, 인도 13.0%, 파키스탄 0.0%로 중국 출신 박사 국내 취업자의 국내 잔류 희망 비율이 타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열 40.0%, 의약계열 31.3%, 사회계열 31.0%, 자연계열 25.0%, 공학계열 22.5%로 국내에 취업한 이공계열 외국인 박사의 국내잔류 희망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9. 국내잔류 희망 비율(국내 취업자)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체		146	30.1	중국	52	38.5	
성별	남성	91	25.3	인도	23	13.0	
	여성	55	38.2	베트남	16	25.0	
지역	수도권	74	31.1	파키스탄	5	0.0	
	비수도권	72	29.2	기타	46	34.8	
연령	30세 미만	10	20.0	인문	20	40.0	
	30~39세	112	28.6	사회	29	31.0	
	40~49세	19	42.1	공학	40	22.5	
	50세 이상	5	40.0	자연	36	25.0	
				의약	16	31.3	
			교육(사범)	1	100.0		
			예술·체육	4	75.0		

□ 해외에 취업한 외국인 박사 237명 중 42.2%가 국내에 잔류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해외취업자의 국내잔류 희망 비율을 성별, 지역별, 연령별, 출신 국가별,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 40.5%, 여성 45.2%로 해외에 취업한 여성 외국인 박사의 국내 잔류 희망


-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 39.6%, 비수도권 44.4%로 해외취업자 중 국내에 잔류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 박사가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40~49세가 51.1%로 가장 높은 국내 잔류 희망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30~39세 41.3%, 50세 이상 36.4%, 30세 미만 22.2% 순으로 나타남.
 - 출신 국가별로는 베트남 48.3%, 중국 35.8%, 파키스탄 33.3%, 인도 0.0%로 베트남 출신 박사 중 해외 취업자의 국내잔류 희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공계열별로는 사회계열 51.4%, 공학계열 48.6%, 인문계열 39.5%, 자연계열 38.6%, 교육(사범)계열 36.4%, 의약계열 33.3%, 예술·체육계열 16.7%로 사회계열 출신 해외 취업자의 국내잔류 희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0. 국내잔류 희망 비율(해외 취업자)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체		237	42.2	출신 국가	중국	123	35.8
성별	남성	153	40.5		인도	2	0.0
	여성	84	45.2		베트남	29	48.3
지역	수도권	111	39.6		파키스탄	9	33.3
	비수도권	126	44.4		기타	74	52.7
연령	30세 미만	9	22.2	전공 계열	인문	38	39.5
	30~39세	172	41.3		사회	35	51.4
	40~49세	45	51.1		공학	72	48.6
	50세 이상	11	36.4		자연	57	38.6
					의약	12	33.3
			교육(사범)	11	36.4		
			예술·체육	12	16.7		

IV. 요약 및 결론

- 국내 대학에서 외국인 박사학위 취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급 외국인 인력의 활용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당면과제가 되고 있음.
 - 교육 및 연구 환경과 지원이 좋아서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이 전체 응답자 중 72.0%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외국 고급인력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해 꾸준한 교육 및 연구 지원이 필요함.
- 외국인 국내 박사 취업자 중 77.0%가 국내 및 해외 대학에 취업하였으며, 이들 중 68.5%가 정규직임.
 - 국내와 해외 취업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70% 이상이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은 동일
 - 그러나 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국내 대학에 취업한 외국인 박사의 정규직 비율은 25.3%, 해외 대학에 취업한 박사는 93.6%로 국내 대학의 정규직 비율이 해외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침.
 - 외국인 국내 박사 취업자의 37.6%만이 국내에 잔류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외 고급인력의 양성과 함께 고급인력의 활용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므로 외국인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가 국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로와 처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 

with you

행복한 일자리, 역량있는 직업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동행합니다